[대검찰청 감찰부]의 청렴이야기

Month 월호(제110호

▋ 간추린 청렴 소식

[1] 권익위 '청렴도 측정 설문조사' 실시 안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2. 8. 30. ~ 11. 30. 공공기관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도** 설문조사* 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를 통해 설문 조사를 요청받은 직원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부 직원 무작위 선정, 소속기관에 대한 청렴도 조사

[2] 대검, 전국 청 '청렴 업무 담당자 교육' 실시



대검 감찰부에서는 '22. 8. 16. ~ 8. 17. 법무연수원에서 일선 청 청렴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검찰 청렴정책 등 알찬 강의로 이론을 익히고, 분임토의를 통해 청렴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시간이었습니다.

[3] 대구지검, '전문강사 초빙 청렴 CS 교육' 실시

대구지검에서는 민원 행정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청렴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3***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민원응대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 Customer Satisfaction(고객만족)

[4] 목포지청, '열람등사실 환경 개선' 실시



목포지청에서는 민원인 편의 증대를 위해 열람등사실 환경 개선 및 정비 공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별도 부스 설치, 공간 확장 등 쾌적한 열람등사실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알아두세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O,X 퀴즈

2022. 5. 19.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아시나요? 애매한 부분은 간단한 O. X 퀴즈로 확실히 정리해보세요!



- 1. 직무관련자인 친구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시중은행 수준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면 신고대상이 아니다.()
- 2. 금전을 차용할 당시에는 직무관련자가 아니었으나 이후에 직무관련자가 된 경우 차용 당시 직무관련자가 아니었으므로 그 사실을 신고할 필요가 없다.()

(정답)

1. X 공직자와 금전 거래를 한 사람이 친구라 할지라도, 그 친구가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인 경우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자 지급 여부는 신고의무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2. X 거래상대방이 직무관련자가 된 시점에 채무 관계가 소멸된 것이 아닌 이상 신고의무는 발생함

보고 읽는 스크린 속 청렴!

감성충전, 청렴 명대사

천재적 두뇌와 자폐스펙트럼을 동시에 가진 변호사 우영우! 그녀의 팀은 사회적 약자 사건을 맡아 변호하던 중 증인의 편향된 시각을 지적하여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갑니다.

그러나 그 증인은 다른 팀의 잠재 고객이었고, 그녀의 시니어 변호사는 다른 팀으로부터 우영우의 지적 때문에 중요고객을 놓쳤다며 핀잔을 듣게 되지만 팀원들에게 당당히 말합니다.

"그래도 그깟 공익사건 하나라고 생각하진 말자고, 뭐 수십억 짜리 사건처럼은 아니더라도 열심히 하자"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中

우리에게 하찮아 보이는 일도 누군가에겐 일생의 중요한 일 일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있다면 분명 세상은 좀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청렴 상식이 쏙쏙!

청렴이 있는 문화이야기

「하인리히의 법칙」 예측할 수 없는 재앙은 없다

1920년대에 미국 한 여행 보험 회사의 관리자였던 허버트 W. 하인리히는 7만 5,000건의 산업재해를 분석한 결과 아주 흥미로운 법칙을 하나 발견합니다.

1:29:300 법칙

1:29:300 법칙은, 1개의 큰 재해가 발생했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29번의 작은 재해가 발생했고, 운 좋게 재난은 피했지만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한 사건이 300번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살펴보면, 옥상에 76톤 가량 되는 장치를 설치해 기존 설계하중의 4배를 초과했고 이로 인해 천장에 금이 가는 등 숱한 징조(잠재적 징후)들이 포착되었으며 붕괴위험이 있다는 내부 직원의 신고와 전문가의 진단(작은 사고)을 받고도 별다른 대책을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이런 인재가 붕괴라는 대형 사고로 이어진 것입니다.

하인리히 법칙은 어떤 상황에서든 문제되는 현상이나 오류를 초기에 신속히 발견해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초기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할 경우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우리 주위에도 수많은 부패의 잠재적 징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안일하게 대처하면 곧 큰 사고로 이어져 조직 전체가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청렴한 검찰을 위해 지금 우리 주변의 부패위험요소들을 살펴야 할 때입니다.

- ✓ 참고문헌 시장의 흐름이 보이는 경제법칙 101(김민주 著)
- 이미지 출처 상식으로 보는 세상의 법칙 : 경제편(이한영 著)

상식이 쑥쑥! 선물이 팡팡!

퀴즈 이벤트



다음 질문의 답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조선 중기 청백리에 올랐던 인물로 명종은 그의 유언을 듣고 그의 행적을 글로 찬양한다는 것은 누가 될수 있다 하여 글을 쓰지 않고 상징적으로 백비를 세우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이 백비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① 박수량

② 맹사성

③ 황희

※ 힌트: Monthly청렴 2022년 8월호를 참고하세요~

정답을 보내주신 대상자 중 10명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2만원 상당)을 경품으로 보내드립니다. 정답과 주소를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 응모기간 : <u>2022. 9. 21.까지</u> ★ 응모방법 : 700spo69a@spo.go.kr

> 지난 8월호 정답 ① 샘 레이번 입니다. 정답자 중 아래의 10명을 추첨하여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렸습니다. ^^



축! 김이이(부천), 김이이(울산), 박이이(대구), 정이이(전주), 조이이(서울서부), 장이이(수원고검), 최이이(안양), 최이이(춘천), 한이이(서울고검), 박이이(외부)



민원인의 목소리

직원들이 친절하여 청렴하고 권위주의가 많이 사라 졌다는 것을 느꼈지만, 민원실이 안쪽에 있어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민원실이 외부에서 쉽게 보이지 않는 청이라면 귀 기울여 볼 의견입니다.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아요☺

사무실이 더워서 땀을 흘리고 있는데 조용히 선풍기도 틀어주시고 물어보는 질문에 부담없이 친절하게 답해주셨습니다.



천안지청 열람등사(재판중) 담당자의 세심한 배려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민원인 의견이었습니다♬

